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2025 MAY

Vol.123



경상북도교육청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잠자리

이창모 / 아동문학가

늦잠 깬 준이의
자전거에 앉을까?
아니지.
요까짓 찌그만 데 앉아서야

마당가를 사알살
멤돌아 볼까?
아니지.
요까짓 찌그만 데 놀아서야

마을을 비잉빙
휘돌아 볼까?
아니지.
요까짓 찌그만 데 살아서야

하늘 위로 휘얼훨
날아 올라가
해님의 어깨 위에
앉아 봐야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표지이야기

경산서부초의 어린이날 등굣길 깜짝 행사

발행일 2025. 5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중선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강휘구
 편집 주무관 서옥란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대성광고기획 053)812-2777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seokok7@gbe.kr ☎ 054)805-3063

경북교육 꾸미기

발명교육의 중심, 발명동지	04
거점형 놀봄센터, 돌봄 공백을 없애다	06
작은 성취가 큰 꿈을 만든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08
학부모 도전! 삶(S.A.R.M) 성취 교육감 인증제	10
경북교육청,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	12

교육현장 이야기

유·초·중·고 교육현장 이야기	14
------------------	----

경북아이 뽐내기

청도중앙초 박시준, 전국 육상대회 금메달 쾌거!	16
명인중, 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회서 기량 입증	
경북조리과학고,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고부 2관왕 달성	17
경북체육중고,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메달 13개 쾌거	

공감 더하기

미래 농업교육의 새 모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18
오늘은 어린이날, 행복한 우리들 세상!	20
우리 동네 예쁜 카페, 상희학교 「감나무 카페」	22
성주중앙초 '꿈도리' 음악줄넘기 시범단	24

생생정보 나누기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진다면?	26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28
통계로 살펴보는 요즘 학생들의 꿈	30
쉬운 우리말로 알아보는 친환경 용어	31

	YouTube	경상북도교육청 맛쿨맛쿨TV	
	Instagram	경상북도교육청	
	NAVER 블로그	경상북도교육청	
	facebook	경상북도교육청	

발명교육의 중심



발명동지

발명체험교육관



➤ 위대한 발명은 우연한 실수에서 탄생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발명품은 사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트잇은 접착력이 약한 실패한 접착제로, 전자레인지의 초콜릿이 우연히 녹으면서 개발의 실마리를 찾았고, 페니실린은 실험실의 우발적인 오염에서 발견된 항생제이다. 이런 우연한 발견들은 도전적인 사고와 창의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 바로 그 공간이 '발명동지'라는 별칭을 가진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다.

➤ 전국 최초, 광역발명교육센터 '발명동지'

'발명동지'는 경북교육청과 특허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경주 황리단길 인근의 옛 황남초등학교를 개축해 2022년 3월에 개관하였다. 이곳은 발명채움관, 미래키움관, 도전해움관 3개의 전시 체험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교사, 일반인 누구나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발명동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프로젝트 기반 창의 발명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상상하고, 설계하며, 발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발명 축제나 체험 부스도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지역 주민 누구나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누적 방문객 43만 명을 돌파

2022년 3월에 개관한 '발명동지'는 누적 방문객 수 43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덕분이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활동은 매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동지 캠프'에서는 가족이 함께 미니카를 제작하고, 드론 조종을 체험하며, 발명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대상의 발명 체험교실, 청소년을 위한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교사를 위한 발명 지도자 연수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발명동지, 나도 체험해볼까?

'발명동지'는 모든 연령대가 창의성을 키우고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초등학교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다. 3D 프린터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거나, 드론을 직접 조종하며 비행의 원리를 배우고, 디자인 씽킹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발명경진대회나 발명 축제에 참가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할 기회도 주어진다. 도전과 창의력이 만나는 공간, '발명동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보자!

〈 발명동지 이용 안내 〉

구분	발명채움관	미래키움관	도전해움관
공간구성	발명전시체험, 특허출원 중심 발명전문교육을 위한 공간	AI, 첨단로봇, VR, AR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하는 공간	발명을 놀이로 배우는 놀이중심 체험 공간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전시 • 예약 없이 무료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약-전시체험(개인) •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자만 관람 가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09:30부터 다음 달 예약 가능) 	
관람시간	오전 10:00 ~ 12:00 오후 13:00 ~ 16:30	오전 10:00 ~ 12:00 오후 13:30 ~ 15:30	
운영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법정 공휴일(임시공휴일) 및 명절은 휴관)		
이용요금	이용료 및 주차료(3시간) 무료 ※ 입차 마감시간: 16:30, 예약 방문객은 주차 안내원에게 예약 문자 제시 ※ 월요일(휴관일), 18:00~08:30은 주차 등록을 마친 황남동 주민만 이용 가능		



거점형 늘봄센터, 돌봄 공백을 없애다

초등 돌봄, 이제는 '거점형'으로!

경북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보다 안전하고 알차게 만들어 주기 위해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역 내 인근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교실이나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해 만든 지역 중심의 돌봄·교육 공간이다. 학교 내 돌봄 공간이 부족하거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큰 가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더해져,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포항 늘봄센터, 지역 돌봄의 든든한 허브

지난해 9월 문을 연 포항 거점형 늘봄센터는 송림초등학교 별관에 마련되어, 인근 9개 초등학교 학생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오후, 저녁,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피아노, 우쿨렐레, 드론, 탁구, 코딩, 책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전액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우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지역 내 돌봄 허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센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배움과 놀이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는 '원(Want)-DAY 체험 클래스', 포항 스틸러스 축구단과 함께하는 '늘봄 축구교실' 등 더욱 풍성하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안동과 구미도 준비 중이에요!

포항에 이어 안동과 구미에서도 거점형 늘봄센터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안동은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안동초등학교 후관을 리모델링 중이며, 인근 12개 초등학교 약 100명의 학생이 이용할 예정이다. 구미는 2027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이며, 8개 학교에서 총 125명의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큰 규모라고 한다. 지난 4월엔 경북교육청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공모사업 설명회도 열고, 거점형 센터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늘봄센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거점형 늘봄센터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교육·돌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방과후 시간을 보내며, 학부모는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을 시작으로 안동, 구미 등 센터 확대를 지속해 나가며, 더 많은 학생이 균등한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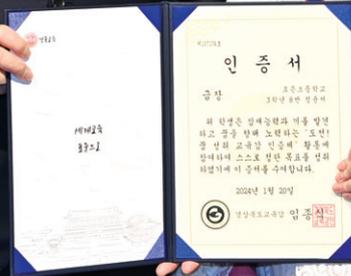




| 경북교육 꾸미기 |



성취 교육감 인
금장



학교
인증서

작은 성취가 큰 꿈을 만든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교육장

교육장 인증+2개 프로그램 인증

작은 성취감은 큰 도전을 위한 힘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성취감을 느끼기 쉽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때 느끼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키워주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용기를 준다. 공부에서의 한 문제를 풀어난 기쁨, 운동에서 기록을 갱신한 성취, 친구에게 친절을 베푼 따뜻함까지, 모든 작은 성취는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경험이다. 이런 경험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도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업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에 전면 시행됐다. 2024년에는 576개 학교에서 학교장 인증제를 운영했으며, 22개 교육지원청에서 4,010명의 학생이 교육감 인증을 받았다. 교육감 인증제에는 1,400여 명의 학생이 도전했고, 이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192명이 인증서를 받았다. 이는 2023년에 84명이 교육감 인증서를 받은 것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192명의 금장, 은장, 동장 인증 학생 외에도 교육감 인증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도전하여 목표를 달성한 417명의 학생에게 교육감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이들은 누적 인증 실적으로 인정받아 올해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인증제는 학교장 인증제(학교별 자율 운영), 교육장 인증제(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지원청 단위 인증), 교육감 인증제(경북교육청이 제시한 10개 프로그램 도전)의 형태로 진행된다.



〈 교육감 인증제 영역별 도전 내용 〉

영역	프로그램명	도전 내용
인문	책 쓰는 아이들	▶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쓰기
	우리 땅 독도 지킴이	▶ 사이버독도학교 수료 및 독도지킴이 활동하기
	도전! 문해력을 높여라	▶ 문해력 과제 수행 및 문해력 인증 골든벨 참가
	경북독서친구와 함께하는 독서 도전기	▶ 경북독서친구 권장도서 읽고 독후 활동하기
봉사	탄소중립! 100일의 도전	▶ 탄소중립 생활 100일간 실천하기
체육	트레킹, 경북 속으로	▶ 경북의 명소 10곳 트레킹하기
예술	꿈다락(꿈多樂) 챌린지	▶ 예술 분야의 도전 영상(또는 사진) 탑재
외국어	English! Speak Up	▶ 학교급별 과제 수행 후 영어인증 한마당 참가
통합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	▶ 사업자, 상표권, 특허권 등록 중 1가지 취득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보고서 탑재

인증+1개 프로그램 인증

금장

교육장 인증+3개 프로그램 인증

2025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2025년에는 ‘도전! 문해력을 높여라’, ‘경북 독서친구와 함께하는 독서 도전기’, ‘창의융합에듀테크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이 신규로 도입되어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다. 아직 ‘도전! 꿈 성취 인증제’에 참여해 보지 않았다면, 올해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학부모 도전! 삶(S.A.R.M) 성취 교육감 인증제

SARM

• 부모의 한 걸음, 자녀의 큰 성장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이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배우고,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정에서 부모는 언제나 처음을 살아간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부모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학부모 도전! 삶 성취 교육감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가정과 학교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4가지 영역에서 도전하는 학부모의 성장

이번 인증제는 학교참여(School), 자녀교육(Academic), 가정-학교 관계맺기(Relationship), 부모-자녀 추억 쌓기(Memory)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학부모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학교참여(School)

학부모는 학교교육설명회에 참석하거나 학교 교육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단순한 참관을 넘어 학부모가 교육 현장의 일원이 되어 학교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녀교육(Academic)

아버지학교, 가족캠프, 미래교육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부모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녀 교육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자녀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가정-학교 관계맺기(Relationship)

교권 인식 퀴즈 참여, 경북 학부모 선언문 필사 등을 통해 학부모는 가정과 학교 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부모-자녀 추억 쌓기(Memory)

자녀사랑 미션 등 다양한 가족 활동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순간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 참여 방법과 인증 절차

참여 학부모는 경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www.gbe.kr/parent)를 통해 각 영역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한 활동을 인증자료로 올려주면 성취 수준에 따라 금장, 은장, 동장의 교육감 인증서가 수여된다.

□ 참여 기간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

□ 참여 방법



□ 인증 심사 11월에 인증 심사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하고, 교육감 인증서를 수여한다.

구분	인증 기준
금장	도전 영역 4개 모두 성취
은장	추억 쌓기(Memory) 영역 성취(필수) + 그 외 도전 영역 2개 성취
동장	추억 쌓기(Memory) 영역 성취(필수) + 그 외 도전 영역 1개 성취

연말에는 인증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나눔회가 개최되어, 학부모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

•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부모의 도전

경북교육청의 '학부모 도전! 삶 성취 교육감 인증제'는 부모와 자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부모는 모두 처음이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의 인증제와 함께라면,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모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고, 교육의 주체로서의 자신감을 찾길 기대한다.



경북교육청,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

2025년 봄,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번지며 7일째 만인 3월 28일에 진화되었다. 정부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산림 피해 면적은 9만여ha, 이는 축구장 12만개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한다.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천년 고찰 고운사가 전소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막대했다.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습 지원에 총력

경북교육청은 산불 발생 직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 학생 920명이 대피하였으며, 이 중 118명은 주택이 전소되어 생활 터전을 잃었다. 또한 교직원 13명도 재산 피해를 입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을 위해 직속 기관과 학교 기숙사를 임시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고, 원격수업 지원과 인근 학교 배치 등을 통해 학습 공백을 최소화했다.

산불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위(Wee) 센터를 활용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긴급복지서비스인 '교육복지 119'를 가동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빠른 일상회복 지원

경북교육청은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교육지원청과 나머지 17개

교육지원청이 자매결연 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도록 하였다. 전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2억 5,500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의 다양한 민간단체와도 협력하여 산불 피해 아동의 긴급 생계비, 학용품, 위생키트 등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였다.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

경북교육청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도 재난 대비 교육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SCHOOL NEWS •

엄마, 아빠 사랑해요! 효도할게요



낙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석해철)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과 8일, 유아를 대상으로 '효' 교육을 했다.

아이들은 동화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감사 릴레이,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효행 실천 쿠폰'을 만들어 가정에서 실천하고, 인증 사진을 유치원에 공유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 유아는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아팠던 게 미안하고 고마워요"라며 마음을 전해 감동을 주었다. 한 학부모는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다"라며 큰 감동을 전했다.

교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청도중앙초등학교(교장 최정하)는 5월 1일, 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학부모와 어르신을 초청한 교육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배움과 나눔팀으로 나뉘어 달리기, 손님 찾기, 필드형 경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부모님,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벤트 경기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회는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푸드트럭을 준비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백○○ 학부모회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한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루어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체육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SCHOOL NEWS •

제106주년 흥부만세 운동 기념식 참여



부구중학교(교장 정석만)는 4월 13일, 북면 흥부만세공원에서 열린 제106회 흥부만세 운동 기념식에 학생과 교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상의 얼을 기리고 독립 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만세삼창과 거리 행진을 통해 자주, 자존, 평등의 3·1 정신을 기리며 조상의 독립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행사가 열린 공원에는 김연문 장군을 기리는 공간과 흥부 만세탑, 만세운동을 재현한 부조벽 등이 있어 교육적 의미를 더했다.

참여 학생은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공원이 역사

의 현장인 것이 놀라웠다”라 놀라움을 표현했고, 작년에 이어 다시 참여한 한 학생은 “이런 시간을 통해 조상님들의 정신을 느낀다”라며 대견한 소감도 전했다.

영천전자고 군특성화반, 110km 국토대장정 전원 완주



영천전자고등학교(교장 정미경) 군특성화반 학생 20명은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된 ‘호국정신 국토대장정’에서 전원 낙오 없이 110km를 완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기제 부사관 입대를 앞둔 학생들은 굶은 날씨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완주해 강한 정신력과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학교에서 출발해 칠곡군 왜관지구전적기념관까지 걸으며, 나라 사랑과 호국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대장 김호식 학생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 응원하며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도
중앙초

청도중앙초 박시준,
전국 육상대회
금메달 래거!



청도 중앙초등학교 (교장 최정하)의 6학년 박시준이 4월 14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3회 춘계 전국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의 남자 초등부 800m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시준 학생은 “지금까지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훈련이 힘들었지만,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니 더 자신감이 생겼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순위	번호	레인	성명	소속	기록
1	156	4	박시준	청도중앙초	2:18.88
2	53	1	이유준	인천석남초	2:21.77
3	7	3	박주한	서울강신초	2:21.86
4	46	6	홍나훈	대구월서초	2:21.88
5	55	5	이하진	인천석정초	2:22.74
6	22	7	김진석	서울영창초	2:23.93
7	68	2	조은혁	울산농서초	2:27.51
8	160	8	장시원	포항대흥초	2:30.94

명인중

명인중,
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회서
기량 입증

명인중학교(교장 백경애) 태권도부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저력을 드러냈다.



여중부 밴텀급에 출전한 손주아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여중부 L, 웰터급 김태린과 남중부 미들급 손하울은 각각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여중부 부문에서 종합 3위에 오르며 팀 전체의 역량 또한 인정받았다. 특히 1학년 손하울은 3학년 선수들을 모두 제치고 준우승을 거두며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경북
조리과학고

경북조리과학고,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고부 2관왕 달성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교장 고시환) 소프트테니스팀은 5월 3일부터 10일까지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제103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고부 단체전과 개인복식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복식 부문에서는 2학년 임수연·김예진이 금메달, 3학년 김나현·1학년 문혜인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2학년 임수연은 개인단식 동메달까지 얻어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석권하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단체전에는 3학년 김나현, 2학년 권유리, 김예진, 임수연, 1학년 문혜인, 이민선이 출전해 탄탄한 팀워크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북
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서
역대 최고 성적 달성

경북교육청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 김해시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금 40개, 은 19개, 동 11개, 총 7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4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 선수단 소속 선수 79명과 임원·보호자 35명 등 총 114명이 참가해, 12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특히 포항명도학교의 김지우, 김현정 학생을 포함해 역도 종목에서 3관왕 7명, 수영과 수련에서 각각 3관왕 1명, 육상, 수영, 수련 등 종목에서 2관왕 6명 등 총 15명의 다관왕이 탄생해 경북의 장애 학생 체육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미래 농업교육의 새 모델,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한영선 /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 교감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 스마트 농업

최근 농업은 기후 변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농업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접목하는 ‘스마트 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이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이끌어갈 전문 인재의 양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농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빠른 현장 도입에 따라, 단순한 생산을 넘어 농산업 경영·분석·혁신을 주도할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의 요람

농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미래 농산업을 선도할 취업·창업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2년 개교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식물공장, 곤충 스마트팜, 창의 융합센터 등 첨단 실습 공간과 함께 농산업 융복합 실습실, 스쿨라운지, 열린 도서관 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미래곤충산업과를 신설하여 학생 진로와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며, 스마트 융복합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등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현장실습, 전문가 멘토링, 창업 동아리 등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과별 기본 및 선택 심화 과정을 통해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창업 등 농산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관심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하거나 창업 아이템을 직접 기획·실행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과 창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농업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다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전국영농학생 축제 과제 이수 발표 및 글로벌 리더십 분야에서 3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계푸드포럼(WFF) 청년회의 참가자로 선발되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월 배출된 첫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융복합 농산업체 창업에 도전하거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첨단 농업기술을 익히고, 경쟁력 있는 농산업체에 취업해 현장 경험을 쌓는 등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북 농업교육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해 첨단 농업교육과 스마트팜 교육 현장을 견학하고, 경북 농업교육 모델을 하와이 현지에 접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와 하와이 James B. Castle High School 간 미래 농업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와이주는 경북교육청과 함께 농업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미래 농업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경북의 선도적 농업교육 시스템을 하와이 현지 교육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의 위기와 변화 속에서, 한국미래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환경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창의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든든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농업교육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은 어린이날, 행복한 우리들 세상!



경산서부초 등굣길에 빨간 망토 소녀, 백설 공주 그리고 미니언즈가 나타났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귀여운 캐릭터로 깜짝 분장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신 것이다. 등교하던 아이들은 평소와는 다른 선생님들의 모습에 놀람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와 안기기도 하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아침부터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를 등교시키러 온 학부모들도 빨간 망토를 두른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놀라움에 험사리 발길을 떼지 못했다.

이날은 경산서부초에서 경북교육청 '따뜻한 행복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교직원들은 행사를 위해 새벽 6시부터 학교에 나와 준비했다고 한다. 오전 9시부터는 학년별로 어린이날 축하 마술 공연, 레크리에이션, 장기 자랑, 체육활동 및 체험활동 등이 진행되었다.



녹색 학교 가꾸기 사업 2년 차인 학교답게 재활용 캔 뚜껑과 커피 박가루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키링(재활용 열쇠고리) 만들기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이 부스는 '초록별 지킴이' 에코 리더 동아리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했다고 하니, 탄소중립 시범학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운동장 곳곳에는 '찰칵 인생 컷', '미션 다 함께 즐넘기', '컬링 컬링'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들이 마련되었다. 체험 부스는 4교시까지 운영되었으며, 고학년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동생들의 체험을 돕는 모습이 훈훈함을 더했다.

모든 행사는 체육관(라온관)에서 공연을 시작으로 운동장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이어졌는데, 행사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았던 것 같다.

1부 공연에서는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시작한 노래가 순식간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떻장으로 바뀐 것이 라든가, 2부에서 친구들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응원하며 안마해 주던 이쁜 모습들도 기억에 남았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3부 장기 자랑 시간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열창하던 두 남학생의 노래 도중 반주가 끊겨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 아이들은 의기소침하게 무대를 내려왔지만, 그때 객석에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와아아아아아~" 하는 뜨거운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아이들은 다시 무대로 올라왔고, 처음보다 더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응원하던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떻창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며 이날을 즐기고 있었다.

흔히 장기 자랑이라고 하면 남 앞에 내세울 만한 훌륭한 공연이나 특기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날 경산서부초의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만의 멋진 모습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표현했다. 당당하고 멋진 모습과 이를 즐기는 성숙한 학생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이날처럼 매일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는 경산서부초 행복학교 프로젝트 '행복이 팽! 터지는 데이' 행사를 보며, 마을이라는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쩌면 학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초등학교 6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각자의 더 큰 꿈을 찾아 훨훨 날아가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 함께했던 행복한 추억과 가슴속 영웅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기를 바란다.





카페 「감나무」를 만나다

상주는 예로부터 쌀, 누에고치, 꽃감이 유명하여 “삼백(三白)의 고장”이라 불려 왔다. 특히 <상주꽃감>으로 유명한 우리 고장은 유실수를 비롯한 감 농사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조선시대에 꽃감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고, 국내 최대 꽃감 생산단지로서 2005년도에는 전국 최초의 꽃감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2011년부터 꽃감 축제, 꽃감 마라톤 대회 등 꽃감과 관련한 지역축제 또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상주시에 있는 공립 특수학교인 상희학교 교정에도 감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를 로고로 한 아름답고 정겨운 카페 「감나무」가 있다. 카페 이름이 이러한 데는 앞서 우리 고장의 대표 특산물인 감을 상징함과 동시에 ‘감사’, ‘나눔’, ‘무한’의 앞 글자를 따 ‘지역사회와 더불어 감사함을 무한대로 나눈다’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다.

카페 「감나무」는 2018년 8월 상희학교 전공과 학생들의 직업 교육을 위한 체험관으로 개관, 2019년 <경북교육청 지정 제1호 학교기업>으로 선정되어 카페 운영을 사업 종목으로 정하고 운영하여 온 지 올해로 7년 차가 되었다. 2019년 5월 카페 「감나무」를 오픈하면서 전공과 선생님이 운영하여 오던 것을 상희학교 졸업생 바리스타 김진수 씨(2019년 졸업)를 고용하였고 장애인 희망 일자리 계약직 실무원(1년 계약)으로 5명의 졸업생이 고용되어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진수 씨 외 졸업생 2명을 고용하여 모두 3명의 바리스타가 함께 일하고 있다. 카페에 근무 소감을 묻는 말에 바리스타 김진수 씨는 “제가 만든 커피와 음료를 손님들께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됩니다”라며 미소를 짓는다.



이루어지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을 운영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감사와 나눔의 정신으로 성장의 상징이 되다

카페 「감나무」의 수익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수익금은 단순히 카페 운영비로 쓰지 않고 2019년부터 꾸준히 현장실습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2023년에 '학교기업 장학금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전교생, 현장실습생, 이웃 학교에 나눔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2025년 3월 현재까지, 총 549명에게 113,200,000원(일억천삼백이십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감나무 카페는 장애 학생들의 단순한 직업 체험을 넘어, 현장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향상, 대인 서비스의 태도 함양,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자립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데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학교기업이 졸업생 취업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학생에게는 교육복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임을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장애 학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든다

학교기업은 산학협동의 사업체로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체이다. 특별히 특수학교의 학교기업은 전공 과정이 운영 주체가 되어 이들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적 전환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현장실습,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발생한 수익금은 교육에 재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상허학교 외에도 3개의 특수학교 학교기업에 특색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안동영명학교 「담다」, 포항명도학교 「다빈」이 바로 그곳이다. 안동영명학교의 학교기업 「담다」는 '학생의 꿈에 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명도학교 학교기업 「다빈」 역시 '도전하는 마음과 노력이 더해지면 꿈을 현실로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

카페 「감나무」는 저렴한 가격과 아늑한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웃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주도서관과 상주시청이 근접하고 있어 이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상주시가 국특원 주최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병행하였고, 24년 5월에는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꿈꾸는 음악 대장간' 오프닝 공연 콜라보 행사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이용하는 열린 나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카페 「감나무」가 단순한 휴게 음식점을 넘어 무한한 감사함을 나누며 학생의 자립과 함께, 학부모,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주중앙초 '꿈도리' 음악줄넘기 시범단

김동섭 / 성주중앙초등학교 교장

신나는 음악줄넘기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놀이터보다는 화면 속 영상에 더 집중하고, 친구들과의 신체적 교류보다는 온라인 환경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성장기 아이들의 기초 체력 저하, 사회성 결핍, 정서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성주중앙초등학교(교장 김동섭)는 '신나는 음악줄넘기로 몸 튼튼! 마음 튼튼!' 주제로 학교 특색교육을 운영하며, 건강한 놀이 문화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신나는 음악줄넘기로 몸 튼튼! 마음 튼튼!' 프로그램 >

구분	대상	시기	추진내용														
음악줄넘기 520운동	전교생 교직원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회, 20분 '신나는 음악줄넘기 운동' 전개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일</th> <th>월</th> <th>화</th> <th>수</th> <th>목</th> <th>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형태</td> <td>개인(1인) 음악 줄넘기</td> <td>짝(2인) 음악 줄넘기</td> <td>개인(1인) 음악 줄넘기</td> <td>단체 줄넘기 (학급, 동아리)</td> <td>짝(2인) 음악 줄넘기</td> <td><일요일> 가족 줄넘기</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목: 개인 줄넘기, 화, 금: 짝(2인)줄넘기, 수: 단체줄넘기 	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형태	개인(1인) 음악 줄넘기	짝(2인) 음악 줄넘기	개인(1인) 음악 줄넘기	단체 줄넘기 (학급, 동아리)	짝(2인) 음악 줄넘기	<일요일> 가족 줄넘기
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형태	개인(1인) 음악 줄넘기	짝(2인) 음악 줄넘기	개인(1인) 음악 줄넘기	단체 줄넘기 (학급, 동아리)	짝(2인) 음악 줄넘기	<일요일> 가족 줄넘기											
가족 줄넘기 날	전세대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회 일요일 - 가족 줄넘기 날 운영 														
줄넘기 축제 한마당 개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10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넘기로 하는 이색 운동회(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 축제) ○ 전교생 음악줄넘기 동아리 대항 줄넘기대회 ○ 가족 대항 줄넘기대회, 지역주민 건강줄넘기대회 ○ '성주중앙 꿈도리' 시범단 음악줄넘기 공연 														
줄넘기 급수제	전교생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생 줄넘기 급수제 운영 ○ 줄넘기 급수 심사(매월 넷째주) 및 학교장 인증서 수여 														

음악줄넘기 520운동

매일 오전 10시 20분,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한달음에 달려간다. 중간 놀이 시간 20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음악줄넘기 520운동'은 주 5일, 하루 20분간 신나는 음악에 맞춰 줄넘기를 하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운동과 놀이를 즐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아이들이 즐겁고 흥겨운 경험을 통해 기초 체력을 기르고 건강한 심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꿈도리' 시범단, 줄넘기에 꿈을 싣다

성주중앙초는 지난 3월, 3~6학년 중 희망자 25명으로 '꿈도리' 음악줄넘기 시범단을 구성했다. '줄넘기에 꿈을 실어 돌리는 아이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시범단은 창작 음악줄넘기, 복수 줄넘기, 복합 줄넘기, 더블터치 등 다양한 줄넘기 기술을 중간 놀이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체육 행사와 지역 문화 행사 등에 초청되어 공연을 선보이며, 줄넘기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땀 흘리는 기쁨, 협력의 소중함, 자신감을 함께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 '꿈도리' 시범단은 줄넘기 실력을 더욱 갈고닦아 음악줄넘기에 '독도 사랑 나라 사랑' 마음을 담은 '독도는 우리 땅' 창작 음악줄넘기와 다양하고 화려한 줄넘기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오늘도 '꿈도리' 시범단 아이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줄에 꿈과 희망을 실어 돌리며,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성주중앙초의 이 작은 변화가 건강하고 행복한 배움의 문화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진다면?

류수정 /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



혹자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능력도 없고, 미성년자라 도박장에 갈 수도 없는데 무슨 도박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기만 해도 수백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손쉽게 검색되고, 도박 의도가 없더라도 무료 영화나 웹툰을 보려다 우연히 접하게 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화려한 도박 광고의 유혹에 이끌려 도박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핸드폰이나 계좌번호만으로도 불법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 의외로 간단하게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은 4.3%(395만여 명 중 약 17만 명)로 나타났으며, 그중 19.1%(약 3만 명)는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일부는 습관적으로 도박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도박을 접하는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친구와 주변 선후배를 통해서입니다. 친구나 선후배가 도박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같이 하거나 공유해준 사이트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또래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중요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도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리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접근성을 낮추는 전략을 씁니다. 심지어 일부 친구들에게 도박을 전파하는 총판의 역할도 시켜 회원들을 모집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촘촘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더욱 불법 도박으로부터 헤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도박 행동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일탈행동으로 이어져 절도나 사기, 폭력 등의 2차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편, 청소년들의 뇌는 성인의 뇌와 달리 성숙 중으로 자극에 대한 발화점이 낮습니다. 이는 작은 자극에도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더 많이 자주 분비하게 되어 도박 행동이 반복되면 이전에 경험한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도박 행동으로 인한 도파민이 주는 더 큰 재미와 자극, 설렘을 찾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은 점점 일상생활이 무로해지게 되고 그로 인한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결과(학업, 재정, 관계, 정서 등)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도 도박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도 사실, 거의 매일 '도박을 할까? 말까?' 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고민과 함께 끊을 수 없는 유혹(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욕구와 유희에 대한 욕구, 빛을 갠기 위함 등)으로 인해 자신도 그 한순간 '모르겠다' 라며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도박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계속 늘어나는 빛과 도박 행동으로 인해 짜증과 분노, 후회의 감정과 예민해진 자기 모습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도박중독은 습관이 아닌 질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도박중독의 특성인 내성과 금단 증상은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이 도박 행동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중단할 수 있도록 중독 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각자가 도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충분한 욕구를 해소하려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설령, 도박에 빠지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벗어 나려는 동기가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

넷째, 청소년기의 도박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청소년에게 도박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도박 면역력은 단순히 청소년 스스로가 강화하는 방안이 아니고 긍정적인 감성과 감정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은 학교, 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지침〉

1.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청소년이 도박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의 변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돈과 관련된 거짓말, 잦은 금전 요구, 스마트폰 사용 증가, 비밀스러운 행동 등이 도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화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
3. 온라인 환경에서 도박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 광고, 도박사이트, SNS 기반 도박 커뮤니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해야 합니다.
4.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협력해야 합니다.
학생이 도박 문제에 빠졌을 경우, 보호자가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교사가 단독으로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개방적인 대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전문 기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도박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할 경우,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1336)나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료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022) 학교 도박 문제 대응매뉴얼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



완주하고 인증받자!

창의융합에듀파크 스탬프 투어는 올해 '도전! 꿈 성취 인증제'의 통합(창의융합)영역의 신규 인증 활동으로 선정되었다. 학생들은 경북 도내에 지정된 창의융합에듀파크 40개 기관을 방문해 과학, 수학, 정보,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기관별 방문 인증 스탬프를 받게 된다. 체험활동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학습 효과도 높다. 스탬프 투어 완주 조건은 간단하다.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정 기관 중 5개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을 받으면 된다. 완주한 학생은 '도전! 꿈 성취 인증제'의 1개 프로그램을 인증하게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 인증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도전! 꿈 성취 인증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창의융합기관을 찾아 스탬프도 받고, 즐겁고 유익한 체험으로 나만의 인증을 완성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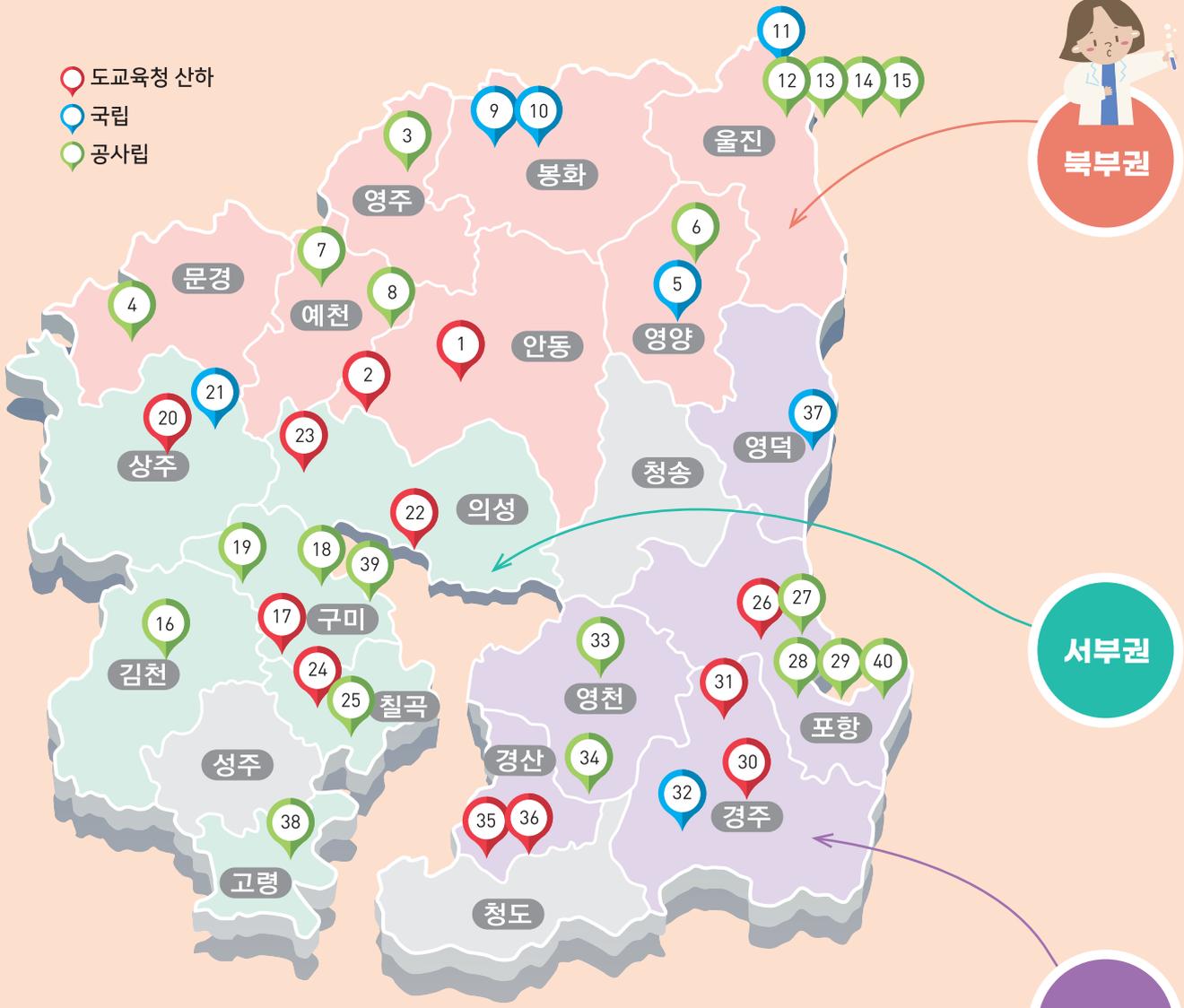
< 창의융합에듀파크 기관 >

구분	북부권(15기관)	서부권(12기관)	남동부권(13기관)
경북 교육청 산하 (13)	1.북부메이커교육센터 2.안동수학체험센터	17.메이커교육관 20.상주수학체험센터 22.인공지능(AI)교육센터 23.의성안전체험관 24.칠곡수학체험센터	26.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30.발명체험교육관 31.경주안전체험관 35.남부메이커교육센터 36.경산수학체험센터 40.수학문화관(하반기 예정)
유관 기관 (27)	3.영주콩세계과학관 4.문경에코월드 5.국립생태원멸종위기복원센터 6.영양반딧불이천문대 7.예천곤충생태원 8.예천천문우주센터 9.국립백두대간수목원 10.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11.국립해양과학관 12.울진곤충여행관 13.울진아쿠아리움 14.울진안전체험관 15.울진과학체험관	16.김천녹색미래과학관 18.구미과학관 19.탄소제로교육관 2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5.꿀벌나라테마공원 38.고령어린이과학관 39.구미전자정보기술원	27.포항공과대학교나노융합기술원 28.포항가속기연구소 29.한국로봇융합연구원로보라이프뮤지엄 32.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과학연구단 33.영천보현산천문과학관 34.영천최무선과학관 37.국립청소년해양센터

※ 기관번호는 창의융합에듀파크기관 지도의 번호와 일치함



< 창의융합에듀파크 기관 지도 >



※ 성주, 청송, 청도, 울릉도는 추후 유관기관 지정 예정



창의융합에듀파크란?

과학 · 수학 · 정보 · 환경 · 안전 교육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종 체험센터(관)와 지역의 유관기관 및 교육시설을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 통계로 살펴보는 요즘 학생들의 꿈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초·중등 학생들의 진로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 진로교육 정책의 현장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전국 단위의 진로 관련 공식 통계로, 학생들의 희망 직업 변화 추이와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도 조사 결과를 통해, 요즘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 직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자.

< 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20위 >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직업명	비율
1	운동선수	12.9	교사	6.8	교사	6.9
2	의사	6.1	운동선수	5.9	간호사	5.8
3	크리에이터	4.8	의사	5.1	군인	2.7
4	교사	4.7	경찰관/수사관	3.3	경찰관/수사관	2.7
5	요리사/조리사	4.1	약사	2.6	CEO/경영자	2.5
6	경찰관/수사관	3.5	간호사	2.5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2.4
7	제과제빵원	3.4	회사원	2.4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	2.4
8	가수/성악가	3.2	요리사/조리사	2.4	회사원	2.3
9	법률전문가	3.0	뷰티디자이너	2.4	경영·경제 관련 전문직	2.3
10	배우/모델	3.0	군인	2.3	감독/PD	2.3
11	프로게이머	2.7	제과제빵원	2.2	보건·의료분야 기술직	2.2
12	만화가/웹툰작가	2.6	배우/모델	2.2	뷰티디자이너	2.1
13	동물사육사/보호/관리사	2.1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2.2	의사	2.1
14	수익사	2.1	CEO/경영자	2.1	건축가/건축공학자	2.0
15	회사원	2.0	시각디자이너	1.9	배우/모델	1.9
16	지휘자/작곡가/연주가	1.9	만화가/웹툰작가	1.9	운동선수	1.9
17	뷰티디자이너	1.9	법률전문가	1.8	요리사/조리사	1.8
18	작가	1.8	수익사	1.6	(일반)연구원	1.4
19	화가/조각가	1.4	작가	1.5	법률전문가	1.4
20	군인	1.4	지휘자/작곡가/연주가	1.5	광고·마케팅 전문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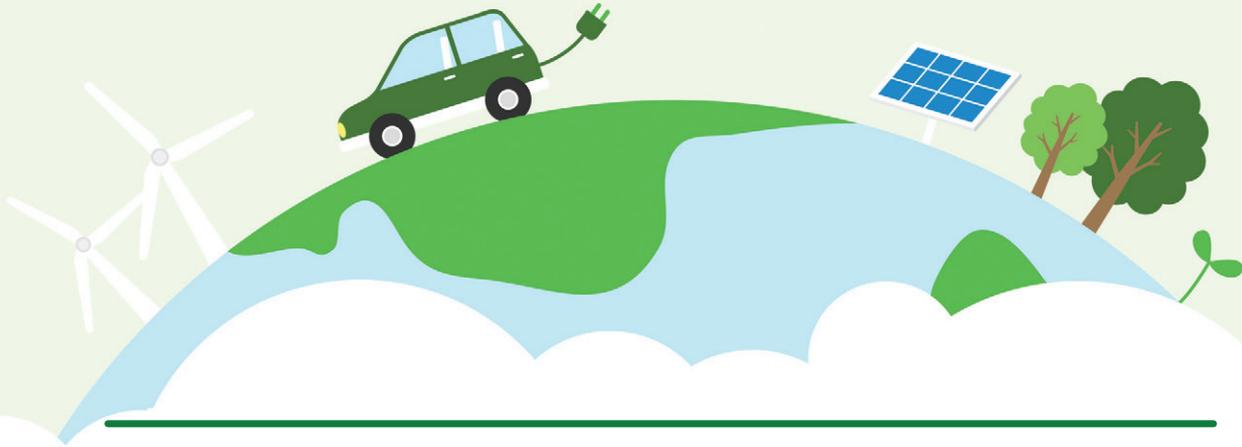
< 학생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 >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52.5	51.3	44.3
내가 잘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18.2	19.0	20.3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9.7	10.9	10.9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2	4.5	6.0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4.1	3.3	4.7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6	4.8	6.7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9	0.8	0.8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으로 일할 것 같아서	3.2	3.1	4.6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3.2	1.7	1.4
기타	0.4	0.6	0.3



쉬운 우리말로 알아보는 친환경 용어



그린슈머

친환경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 따위를 선호하는 소비자

녹색 소비자

플로깅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운동

쓰담 달리기

업사이클링

버려지는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새활용

제로웨이스트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환경 운동

쓰레기 없애기

그린 플레이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친환경 물가 상승

*자료 출처: 국어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운영 누리집 '쉬운 우리말을 쓰자'



주민참여예산제란?

사업
공모

신청자격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기간

2025년 연중

※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

대상사업

경북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적용이 가능한 교육

및 시설 사업

공모제외사업

법령·조례에 위반되는

사업이나 특정 개인·단체

의 이익에 국한된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등에

대한 제안은 제외

참여방법

온라인 접수

주민참여예산 누리집

(www.gbe.kr/gbejumin)

에서 제안 신청



주민참여예산제란?

경북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기획예산관

☎ 054-805-3135